

끈질긴 사탄의 유혹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하-

사무엘하 11:2-4, 히브리서 2:14-15

정윤돈 목사님

* **삼하11:2-4**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소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히2:14-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 직장과 사업과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갈등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상태 12가지를 더 잘 정리하는 것 같다. 사실 복음이 아니라면 가장 바른 종교, 철학이 불교인 것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고통이고 번뇌이다. 인간은 근본 번뇌 6가지, 욕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잘못된 견해 속에 쓸데없이 헤매고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리고 눈, 코, 귀, 혀, 몸, 마음, 6가지를 통해 좋음, 싫음, 무관심과 고통을 느끼며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게 불신자상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도 번뇌고 깨달아도 번뇌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행복으로 결론내시기 바란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끝까지 고통을 준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속인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봉사한다고 빠지고 봉사 안 해서 미안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번뇌, 불신앙을 박살내고 내 주인,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문제 상황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직장, 교회, 부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 내게 램뉼트 7명처럼 언약이 있으면 모든 환경, 조건 탓하지 않고 축복의 주역이 된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다. 바보같

이 예배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만 열심히 하는데 후대에게 후암이 꺾인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개인과 후대는 직장과 산업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결론내어 예배에 성공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셔라.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다. 사무엘하를 보면서 성공했을 때 사탄, 마귀가 더 역사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램뉼트 후대들이 어린시절, 청소년시절부터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 다윗은 모택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끈질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왕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잘못했으니 미안하다고 사죄하라고 한다. 말은 쉽게 한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쉽지 않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하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원수도 기도해줘야 한다. 고생하고 망할 것 같은 광야생활이 오히려 축복이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 축복인 것은, 어디 가서 내 자녀 자랑 못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성도들과 후대 램뉼트들이 되시기 바란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뻔뻔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남의 죄, 나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해결했기 때문이다. 마약하고 도박하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스스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들 너무 겸손하고 믿음이 있다. 스스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이다. 모두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오직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진짜 목상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신다. 우리가 원죄제질을 따라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신다. 원수까지 축복하는 체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영혼 깊이 그리스도의 땅대가 새겨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땅대 위에 선 파수꾼이 되어 모든 흑암의 현장을 빛으로, 등대로 지키고 흑암을 꺾으시기 바란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다. 사무엘하는 다윗 인생의 여정의 빛과 여두움을 기록한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유혹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다.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1. 사무엘하에 나오는 몇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착각하게 하고 죄 짓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성공할수록 온갖 어려움이 온다. 부자가 될수록 근심과 문제가 많다. 성공할수록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유혹도 많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다가 실패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자이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대장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주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언약을 애매하게 잡고 있다는 것만 고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애매하게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진실하게 구하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1) 첫 번째 인물은 아브넬 장군이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군 중 최고가는 장군이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후 권세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의 첩들과 통간한다. 이를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꾸짖자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저주하고 협박하였다. 사무엘하 3장 8절을 보면 “아브넬

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나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고 했다. 여기서 '개 머리'는 공동번역에서 '나를 개 대라기로 아시오'라고 번역한다. '이 여인의 허물'도 공동번역에는 '하찮은 여자 일로 나를 책 잡으려 하시오'라고 번역한다. 그러자 사무엘하 3장 11절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인간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대부분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조심할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램프 때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며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2) 두 번째 인물은 요압 장군이다. 요압은 다윗 왕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아브넬을 유인하여 찢어 죽였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찢어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고 아브넬도 다윗에게 쫓겨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압은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꼭 찢리지 않더라도 말로, 거짓으로, 미움으로 죽인다.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 뒷말을 하면 듣지 마시라.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틀린 말, 거짓으로 말한다. 그러나 오직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래서 성경에도 선악과를 두고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죄인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생명과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도록 했다. 이걸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 받은 자로서 그런 자격이 없다.

반면 사무엘하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요셉밧세벳, 엘르아살과 삼아이다. 이들은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고향의 물,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 하자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들은 베들레헴에 잠입하여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우물 물을 떠온 사람들이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적진의 중심지였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그리스도로서 살리는 길 의미한다. 이 세 용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물을 길러 온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이름 없는 제자이지만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름 없이, 조용히 생명의 샘물,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단을 지키실 것이다.

(3) 다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다. 압살롬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다운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말바다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이라고 말한다. ① 그러나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제 암논을 유인하여 죽였다. 형제를 죽인 것이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중간에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을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② 그리고 압살롬은 정당하지 않은 술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압살롬이 잘생기고 훌륭한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다윗을 쫓아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조금 기다리면 다윗의 것이 자기 것 될텐데 조금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조금함이 영적 문제다. 흥하는 마지막 순간에 갈라진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생각이 많이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다. 잘못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말라 죽는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쉬지 않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역올한 일을 당해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 이름답다. 그래야 사탄에게 끈질기게 끌려다니지 않고 꺾을 수 있다. ④ 또 압살롬은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하였다. 이 장면을 보면 돈과 권력에는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는 것이 세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완전복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에 의해 죽게 된다.

2. 사탄에게 속아 넘어진 다윗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다. 지도자,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결국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이다.

(1) 첫 번째로 다윗은 왕이 된 후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까지 하였다. 그 부인은 밧세바였고, 남편은 충성된 장군 우리아였다.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고 집에 가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잔다. 이에 당황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조서를 상관에게 보내어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죄를 또 지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 바란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유혹과 위기가 오면 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족과 후대를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조금만 말씀을 놓치면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 돈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다. 어려움 당해서 매 맺고 광야로 고난 받을 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처럼 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다윗이 범한 대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인구 수를 센 것이다. 다윗은 소년시절에 혼자서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언약과 믿음이 약해지자 불신앙을 선택하였다. 사무엘하 24장 4절을 보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때 요압 장군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중요한 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 불신앙이 부하에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한 후 인구계수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후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할 때 사무엘하 24장 9절처럼 군대가 130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을 것이다.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만큼 언약하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산하지 마시라.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계산하고 돈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굳게 붙잡고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를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과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영육간의 최고 축복을 받아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하는 성도와 후대되게 하옵소서. 여름기간 훈련받고 헌신하고 오가는 길에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최고로 응답받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나라, 민족, 개인, 가정, 가문,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속지 않고 오직 어려움을 축복의 발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베들레헴의 생명의 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